

“군산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해달라”

전북지역 상공인들 정부에 건의서 전달...내년 예산반영 요구 2022년까지 군산항 인근 중고차 수출단지 사업 시행 촉구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아 지역 경제가 침체된 군산 지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달라는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15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최근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한편,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상공회의소들로 구성된 전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이하 전북상협)는 14일 “군산지역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

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군산항 옆 임해입무단지에 22만㎡ 규모의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 중고차 수출업체 등 200여개를 유치해 침체한 군산경제와 군산항 활력 회복을 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는 답보 상태다.

전북상협은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가 신규 보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 이 사

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연간 600억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1200개 창출, 군산항 자동차 수출량 7만대 증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은 연간 약 36만대(11억달러) 수준이지만 일본은 우려했던 차량이라는 단점에도 우리나라의 4배 수준인 120만대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군산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은 국가적으로도 일본과 중고차 수출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뒤

2000여명의 공장 직원 가운데 1400명 가량이 희망퇴직하고, 600여명이 부평과 창원 공장에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며 군산지역 협력업체 119곳 가운데 15곳이 휴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난해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일대 2km를 배후 공간으로 하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지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 광한루 전경.

“전문해설가와 함께 남원 광한루 둘러보세요”

건립 600주년 기념 하루 두차례 특별 개방행사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남원 광한루를 둘러볼 기회가 생겼다.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해 이달 31일까지 특별 개방행사를 연다.

시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등 하루 두차례에 걸쳐 30분씩 개방한다.

15명씩을 선착순으로 예약받아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해준다.

남원시는 다음 달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광한루원에서 국악 버스킹(거리공연)도 한다.

광한루는 조선 초기인 1419년에 남원으로 유배 온 황희 정승이 지은 목조건물로 평양 부벽루, 진주 축서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불린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전봉준 밀고자 순창 출신 아니다”

순창군, 드라마 ‘녹두꽃’ 방영 관련 정정 요구

120여년 전 의새와 탐관오리가 판을 치는 시기에 보국안민·제국구민 기치로 일어난 전봉준(1855~1895) 장군의 꿈을 꺾은 밀고자의 고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을 밀고한 김경천의 고향이 순창이다”는 대사가 포함된 부분이 방영되면서다.

순창군은 당장, 발간하고 나섰다.

순창군은 “밀고자로 알려진 ‘김경천의 고향이 정읍 덕천면’이라는 내용이 정읍군지,

감오동학혁명사, 동학농민전쟁 연구자료집 등 검증된 연구 저서에 기록되어 있다”며 방영내용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군은 또 드라마 홈페이지 내 김경천 소개 부분뿐 아니라 허위사실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냈다. 그렇다면 ‘밀고자’로 알려진 김경천의 고향은 어디일까. 또 김경천이 전봉준을 밀고한 건 맞는 걸까.

우선, 관군에게 밀리던 전봉준 장군이

1894년 말 순창군 피노리를 택한 것은 옛 부하 김경천이 이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김경천은 전봉준이 고부 점주로 있을 때 집사 일을 보며 그를 도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심약한 김경천은 현상금에 눈이 멀어 전봉준을 밀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간에서는 “전봉준이 ‘경천(敬天)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괘가 나돌았다고 한다.

김경천은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 한신현에게 전봉준의 거처를 알려줬고 전봉준은 몽둥이에 맞아 체포됐다고 전해진다. 김경천은 세상의 눈총과 보복이 두려워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순창군 쌍치면 피노마을에 세워진 ‘전봉

준 장군 피체(被逮) 유적비’에는 ‘정읍 출신 김경천의 밀고로 전봉준 장군이 체포된 곳’이라고 적혀있다.

피체 유적비가 2005년 세워질 당시 정읍시민대책위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의 자긍심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순창군에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동학 연구가인 박영수 원광대 총장의 판단은 다르다.

박 총장은 “당시 공식기록인 관찬 사료를 보면 김경천에 의해 전봉준 장군이 붙잡혔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기록에는 사인(士人) 한신현이 전봉준 장군을 체포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복날엔 복분자를’...고창군, 대체음식 개발 보급키로

복날에는 복분자를!
복분자를 재료로 하는 복달임 음식을 맛볼 기회가 생겼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사)고창복분자6차산업화사업단은 복분자로 복달임 음식을 대체 개발하고 보급하자는 취지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부안면 복분자 클러스터단지에서 고창복날 행사를 연다. <포스터>

이번 행사는 고창 복분자를 소재로 고창만의 복날음식을 개발·보급해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복분자를 재료로 하는 간편식 레시피 개발과 식도락 관광상품으로 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복분자 음식 문화 확산을 위한 ‘복분자 레시피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복분자를 재료로 하는 복달임 요리 경연대회도 펼쳐진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 등은 복분자를 활용한 음식개발로 인기를 끈 작품의 경우 향후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영광 한빛원전 재가동 반대 정읍시의회 대책위

정읍시의회가 영광 한빛원전 재가동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내고 “주민 동의 없는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은 수용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주 대책위원장은 “한빛원전 1호기는 건립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 원전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9명의 의원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한빛원전 1호기의 폐쇄와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익산시,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2021년 착공 목표...지방재정투자심사 전북도에 의뢰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행정 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전북도에 의뢰한 상태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1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전북도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에 실제 공도를 거쳐 2021년 공사를 시작, 2023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는 850억원을 들여 현재의 청사를 헐고 지하 1층·지상 10층(건물면적 3만9271㎡) 규모로 지어진다.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도

서관, 다목적홀, 야외 다목적광장, 소공원 등도 갖는다.

다만,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와 건물 규모 등은 축소될 수 있다.

익산시는 1970년 건립된 현재의 청사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건립 필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전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대학생이 직접 만든 자동차 대회...오늘 새만금 경주장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가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새만금 군산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부터 열린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는 올해 13회째로,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군산시가 후원해 펼쳐진다.

대회 종합 우승팀(KSAE Grand Prix)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분별 경쟁이 이루어지고 총 상금규모는 3500만원 상당이다.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제작한 차량으로 경주를 펼

쳐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 올해에는 102개 대학교에서 195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

대학생들에게는 자동차를 직접 설계 및 제작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동차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회는 Off Road Baja 부문, On Road Formula 부문, 전기차 부문으로 나뉘고 창의성 있는 기술력과 신선한 아이디어, 독특한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술 부문 경쟁도 진행된다.

대회장 관람은 무료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